

빛가람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 저출생 극복 실천 선언

이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저출생, 지역 인구소멸 문제 공동 대응 나주시와 협력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도 다짐

국내 최대 규모 공기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10개 이전 공공기관들은 21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실천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저출생 현안대응 협의회' 활동의 하나로, 전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생과 지역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선언식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각 기관 직원들의 결혼·출산·육아

를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식에는 한전,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지역 균형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 이후 나주시의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다. 기관들이 위치한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이전기관(16개)과 이전인원(769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인

구는 지난 2014년 9만669명에서 지난해 11만 7103명으로 29% 늘었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전체 인구 대비 40세 미만 인구 비율이 57.6%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또 나주시의 재정 규모 역시 지난 2014년 5932억원에서 지난해 1만1779억원으로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 9월 협의회를 구성, 기관별로 현안 및 관련된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실천선언식을 통해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나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21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에서 개최된 '저출생 위기극복 실천선언식'에서 안중은(왼쪽 여섯번째) 한전 경영관리부사장 직무대행 등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10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립 56주년 기념 '돈 터지는 광주은행 생일잔치, 돈 터치' 이벤트

참여자 전원 포인트 혜택

광주은행이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19일까지 '돈 터지는 광주은행 생일잔치, 돈 터치'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 Wa뱅크 앱을 사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벤트 기간 중 매일 참여만 해도 전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광주Wa뱅크 앱을 통해 00부터 99까지

돌아가는 숫자 중 '멤' 버튼을 클릭해, 광주은행의 나이인 56을 맞추면 더 큰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벤트 최초 참여에서 56 맞추기를 성공한 경우 3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때마다 1000포인트가 지급된다. 또 56 맞추기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소액의 랜덤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벤트를 통해 수령한 포인트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Wa뱅크 앱 최종 업데이트 버전에서만 가능하

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종준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광주은행 창립 56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동안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께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KCA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인적자원개발 협약



광주테크노파크, 광기반 양자과학기술 세미나

각계 전문가 50명 주제발표·토론

광주테크노파크가 지난 19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본부에서 '미래 전략기술, 광기반 양자과학기술 전망'이라는 주제로 양자기술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GQT코리아 조정식 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 ㈜퀀텀센싱 방찬우 부사장 등이 각각 '양자암호통신기

술과 광기술', '양자센서의 상용화 현황', '양자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최근 광주테크노파크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기조에 대응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 전략산업인 광산업 기업들의 양자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 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지난 20일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KCA와 농림식품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6개 공공기관은 인적자원개발 및 성장을 목표로 ▲인적자원(HR)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인적자원개발(HRD) 운영계획 공유 ▲인적자원·정보·자문 등 교류·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및 교류하기로 했다. HR 협의회는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해 경제유튜버인 김판부, 김애란 소설작가 등의 강연을 추진했다. 오는 27일에는 박재범 극작가의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훈 KCA 원장은 "각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해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조만간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양자산업법은 양자종합계획 수립, 연구산업 중심지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업과 양자산업은 빛과 광학을 활용하여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한 혁신적이며 확정된 미래 전략분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김경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산업과 양자산업은 현재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두 산업의 융합은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공지능으로 혁신하다'...GICON '광주 디지털혁신 포럼'

과학 유튜버·뇌과학자 등 강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지난 20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MX스튜디오에서 '광주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로 혁신하다'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GICON이 주관했다. **〈사진〉** 광주 디지털혁신 포럼은 광주시의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시민 체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과학 유튜버·뇌과학자·AI반도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유튜버 1분과학의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환상의 세계 ▲아우토크립트 김덕수 대표의 미래모빌리티와 AI활용 ▲에이저택트 윤희진 이사의 시스템반도체 AI혁명 ▲카이트 김대식 교수의 생성형 AI 2.0 & AGI 등 4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광주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지역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을 체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24 GICON WEEK'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민에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기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윤영 기자 zzzang@

한전, 사우디 가스발전 2개 사업 수주

25년간 4조원 규모 매출 기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1일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아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 루마1과 나이리아1 사업은 각 1.9GW(기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오는 2028년까지 건설해, 향후 25년동안 생산되는 전력 전량을 SPPC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사우디 전력공사(SEC), 사우디 최대 민간전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4조원 가량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발전소 건설공사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참여해 2조원 가량의 해외 동반수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15일 사우디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의 연이은 수주 성공 등을 통해 사우디 시장을 비롯한 중동지역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사우디 시장 내 잇따른 수주 성공을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동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패딩 등 10~30% 브랜드 세일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 '디시즈네버댓(THISISNEVERTHAT)' 매장에서 직원이 패딩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에 디시즈네버댓이 신규 오픈했다. 해당 매장에서 신규 오픈을 기념해 오는 12월 4일까지 10~30% 브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또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우저블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 미디어아트 쇼룸 '다붓다붓' 서울전시 성료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5일까지 서울 성수동 피어 컨템포러리 전시관에서 열린 전남 미디어아트 쇼룸 '다붓다붓'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전시는 전남도 특색자원을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수도권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의 자연, 시간, 빛, 사유, 계절의 정서를 담은 10종의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구성됐으며, XR 포토존과 전통차 시음, 남도 문화를 주제로 한 한국무용 및 스트리트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쇼룸을 찾은 관람객들은 담양의 대나무, 강진의 고려정자, 고흥의 목일신거리, 보성의 녹차밭 등 전남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남도의 고유한 정서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었다. 또 부대행사로 진행한 한국무용과 스트리트댄스,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남도 문화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쇼룸에서 선보인 전남 미디어아트는 더현대서울 7층 초대형 LED월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중에게도 한

번 선보일 예정이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이번 쇼룸을 시작으로 쇼케이스,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로 전남의 특화 콘텐츠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1시간 1특화 콘텐츠를 목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개 시군이 참여하여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43개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 완료했다. 올해는 여수, 화순, 영암, 해남, 나주, 순천의 6개 시군의 특화콘텐츠를 12월 중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0.63 (-1.66)
↓ 코스닥	680.67 (-2.24)
↓ 금리(국고채 3년)	2.829 (-0.044)
↑ 환율(USD)	1397.95 (+7.05)